데임 타운 기초 학교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 어디에서든 화제가 될 만한 화재였으나 불이 난 학교 방향으로 쏟을 신경은 없었다.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찌르고 차가운 눈이 눅눅해진 부츠 아래에서 사박사박 밟혔다. 스카일러는 축 늘어진 또래의 친구를 왼쪽 어깨에 이고 이를 악물었다.접질린 발목과 금 간 손톱의 아픔이 선명했으나 무엇 하나 스카일러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리버…리버, 정신차려. 세상에…”

총상을 입은 리버의 숨이 가파질 때쯤에야 스카일러는 다급한 걸음을 멈추고 슬프게 제 친구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제 또래의 친구 리버의 안색을 살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이가 보기에도 리버는 죽어가고 있었다. 리버의 짙은 하늘색 코트를 검붉게 적신 피가 스카일러를 조바심 나게 만들었다. 아이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 피투성이의 리버를 감쌌다. 침착한 척하려 하였으나 떨리는 손끝을 감추지는 못하였다.

“망할 어른들은 전부 미쳤어!”

“스카이… …”

“아니,아니야…그래 너는 어른 흉보는 걸 싫어하지. 지금 말은 못 들은 척해.”

“… …”

“내가 병원까지 데려다 줄테니까. 병원에 가면 아픈 것도 금방 나을 거야.그때까지 조금만…”

희미하게 울음 섞인 제 친구의 대답에 화답하듯 리버는 힘겹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스카일러는 리버를 품에 끌어안아 한 발자국 내딛었다. 다친 두 아이의 뒤로 불길한 발걸음이 따라붙었다. 모를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인 발걸음이었다. 거지 같은 시골 마을, 인생에 도움 안 되는 과거에 미친 어른들, 엿이나 먹으라지! 부득불 이를 갈며 스카일러는 리버의 가방 안에 도망치며 처박아둔 총기를 꺼내들었다.살면서 한 번도 사용해본 적 없는 물건이었으나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다.그리고는 몸을 틀어 아마도 어른일 발걸음의 출처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 …”

자신을 따라온 어른일 거라는 스카일러의 예상과 달리 총구가 향한 방향에는 알 수 없는 모습을 한 생명체가 서있었다. 어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흉물스러운 괴물의 모습에 스카일러는 숨을 들이켰다.정신을 잃은 리버의 방향으로 다가오는 사족보행의 괴물의 모습에 스카일러는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았다.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가고 싶지 않았다. 살면서 다시는 없을 정도의 강렬한 바램으로 아이는 자신의 친구 리버를 살리고 싶었다.

01.

12살의 스카일러 페이지는 원인 모를 저주에 걸렸다. 몇 달 전, 기분 나쁜 악몽을 꾼 이후로 단 한숨도 잘 수 없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상담해보아도 그저 허풍 내지 거짓말로 취급 받을만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상식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농담 같은 상황에 스카일러는 결국 자신의 상태를 '저주에 걸렸다'고 결론지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칭 '저주'에 걸린 이후부터, 아이는 어디 B급 영화나 말도 안되는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몇 달째 눈 한 번 붙이지 않고 밤과 낮을 지새우고 있다. 그리고 바로 어젯밤도 그는 눈 한 번 붙이지 못한 채 날밤을 샐 수밖에 없었다. 잠을 자지 못하였다고 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니니 그저 신기할 노릇이라고 할 수밖에.

“좋은 아침 스카이. 잘 잤니? 어서 식사하렴."

"네. 좋은… 아침."

스카일러는 고모의 아침인사에 건성으로 대답하며 모자를 눌러썼다. 좋은 아침이라 인사는 했으나 두 사람에게 있어서 썩 기분 좋은 아침은 아니었다. 레니 고모는 만성적으로 우울함을 느끼는 환자였고 스카일러는 몇 달째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였다. 비록 잠을 자지 못해도 실질적인 피로가 쌓이는 것은 아니었으나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정신적으로 지쳐갔다.

레니 고모는 아침부터 땅이 꺼져라 한숨 쉬는 조카의 접시 위로 엉망진창의 스크램블 에그를 올려주었다.

스카일러 자신은 저주의 원인을 모른다고는 하였으나 사실상 아예 짐작이 가지 않은 건 사실 아니었다. 저주에 걸리기 바로 직전 꾸었던 꿈은 무언가에게 쫓기는 악몽이었다. 꿈 속에서 스카일러는 당시 막 전학을 온 전학생 '리버 브레이'와 함께 한겨울의 숲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꿈 속에서 리버는 끔찍한 총상을 입었으며,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스카일러는 죽어가는 리버를 간절하게 살리고 싶었다. 두 아이는 제정신 아닌 어른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들을 피하여 어디로인가 도망쳤다. 아마도 병원을 향하는 중이었을 터다. 스카일러는 리버가 죽어가고 있으며 아마도 살릴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을 어느 순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다 걔가 죽고… …그러고보니 리버는 어떻게 죽었더라…?’

몇 달이 지난 탓인지 꿈에 대한 기억은 엉망진창으로 섞여 있었다. 중간에 괴물과 대적하였던가? 혹은 어른들이 두 사람을 발견하였던가? 자세한 과정은 엉켜있었으나 결말은 정해져 있었다. 리버 브레이는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 속의 스카일러는 리버를 살리고 싶었다. 깨어난 후에도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질 정도로 강렬하게 바랬다. 다시 한 번 친구를 살릴 기회를 얻고 싶다고 염원하던 그 순간… 아이는 꿈에서 쫓겨나듯 깨어나고야 말았다.

해당 꿈을 꾼 바로 그날 밤부터 스카일러는 끊임없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다. 스카일러는 여전히 잠을 잘 수 없다.

"피곤해 보이는구나 스카이. 잠을 못 잤니? 아직도 밤에 몰래 게임하고 그러는 건..."

"아뇨, 아니요. 그냥 추워서 중간에 두 번이나 깼거든요. 그래서인가봐요."

"가을이니까. 쌀쌀하니 창문 잘 닫고 잤어야지. 너는 우리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구나."

스카일러는 테이블의 칠을 벗기며 레니 고모의 잔소리를 흘러넘겼다. 오늘따라 예민한 고모의 상태 때문일까, 혹은 간밤에 곱씹은 여러 생각들과 악몽의 내용 때문일까. 오늘따라 아침이 더욱 피곤하게 느껴졌다. 한참 성을 내던 고모는 평소의 힘없는 어조로 마치 들으라는 듯이 말을 이어나갔다.

“엘라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착한 아이었는데 어쩌다 저렇게 되었는지…”

“… …”

“엘라가 없어지고 모든 게 엉망이야.”

레니 고모의 잔소리를 들어주며 깨작깨작 포크를 놀리던 아이는 결국 맛없는 스크램블 에그를 대부분 남기고 칫솔과 가방을 집어들었다. 부엌에서 무어라 끊임없이 투덜거리는 고모의 소리가 들려왔으나 스카일러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다. 스쿨버스가 올 시간까지는 아직 꽤 남았으나 간만에 일찍 나가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터였다.

--

정신 없는 오전이 지난 후 점심 시간이 찾아왔다. 점심이 지난 바로 다음 교시는 읽기 수업이었다. 한참 식사를 한 후의 읽기 시간이라니. 최악의 시간표였다. 8학년 교실 바닥 카페트 위로 빙 둘러 앉은 같은 반 아이들 상당수가 멍하니 멍청한 표정으로 책과 선생님을 번갈아 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마침 선생님이 이번 수업으로 선정한 책 또한 지루하기 짝이 없는 서적이었다. 그러나 지루하다고 해서 졸 수도 없던 스카일러는 옆에서 꾸벅꾸벅 태평하게 조는 친한 친구 리암의 옆구리를 툭툭 건드리며 괜히 심술을 부렸다. 이 행동이 내심 재미있어 보였는지 둘을 구경하던 다른 친구 칼로가 킥킥 웃으며 스카일러의 장난에 동참했다. 두 사람의 이러한 장난이 익숙한지, 옆구리와 등이 찔린 리암은 소리 지르는 대신 발과 팔로 친구들을 밀어냈다. 소심하게 몸짓으로 짜증 내는 친구와 눈치 주는 선생님을 뒤로 하고 스카일러는 언제 장난을 쳤냐는 듯 태연하게 책장을 넘기고 고개를 들었다. 건너편 선생님 옆에 앉은 리버와 스카일러의 시선이 찰나 맞물렸다.

“… …”

아이는 당황했는지 순간적으로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릴 뻔하였다. 언제부터 바라보고 있던 걸까? 책과 리암에게 완전히 정신이 팔려 이제서야 알아챈 것이 신기할 정도로 노골적인 시선이었다. 눈이 마주쳐 당황한 것은 상대도 마찬가지인 듯 리버는 황급히 고개를 내리고 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왜 뭔일?]

스카일러의 무릎 위로 칼로의 책이 들이밀어졌다. 책 모퉁이에는 깔끔한 글씨로 적힌 질문이 쓰여 있었다.

[리버 브레이가 나 보고있더라.]

[와우 걔가 너 좋아하나보다.]

책 귀퉁이에 하트를 그려 보여주는 칼로를 노려보며 툭 발로 무릎을 건드렸다. 어처구니없는 표정이었다. 책 모서리를 따라 계속해서 하트를 그리는 칼로의 만행에 결국 스카일러가 입을 먼저 열어 소곤거렸다.

“아니거든?”

“아니면 아닌거지 왜 화를 내? 부끄럽구나? 부끄러워? 스카이 아주 인기인이네~”

“놀리지마.”

두 사람의 목소리가 투닥거리는 사이 저절로 커져갔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을 참다 못한 선생님은 결국 스카일러를 지목했다.

“스카일러 다음 대목부터 읽어보세요.”

“다음, 다음 대목이요… 그게 잠시만요.”

수업에 집중하지 않던 스카일러는 당연하게도 다음 대목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허둥지둥 책장을 넘기는 스카일러를 보며 선생님은 가볍게 한숨 쉬었다.

“수업이 지루한 것은 이해해요.”   
“그렇지는 않…”

예의상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전에 선생님이 먼저 말을 자르며 다음 설교를 이어갔다. 함께 떠들고 장난을 친 칼로는 자기 잘못은 없다는 양 먼저 입을 닫고 얄밉게 히죽거렸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그렇게 떠들면 열심히 듣는 다른 친구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겠죠? 스카일러. 그리고 칼로.”

“네…”

“네에.”

“두 사람에게 따로 숙제를 내주겠어요. 오늘 수업 진도까지 책을 다시 읽고 공책 반 장 분량의 요약을 해오도록 하세요.”

가벼운 소란 덕분에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의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옆자리에서는 한심하다는 시선으로 두 사람을 보는 리암이 있었다. 스카일러는 기가 막히다 불만을 가졌으나 떠들어서 소란을 피운 것은 사실이니 어디 하소연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느정도 소란이 정리되고 가벼운 숙제 안내가 끝나자 한 교시의 끝을 알리는 차임벨이 울렸다.

“너네 미스 머피가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서 그래? 공부하는데 방해 좀 하지마!”

읽기 수업이 끝나자마자 깔끔하게 책과 공책을 정리해들며 리암이 투덜거렸다. 칼로는 리암의 불만을 사람 좋게 웃어넘기며 두 친구의 어깨에 하나씩 팔을 올렸다. 공책을 든 팔은 리암의 어깨 위로, 책을 구겨 든 팔은 스카일러의 어깨 위로.

“좋은 날이 있으면 오늘 같은 날도 있는 거지. 안 그래 베스트 프랜즈?”  
“베스트 프랜드는 무슨… 엿이나 먹어.”

“맞아! 베스트 프랜드면 수업 시간에 나 좀 건들지마…! 스카이 너도 포함이야!”

리암의 까칠한 반응과 스카일러의 냉랭한 대답에 불구하고 칼로는 친근하게 말을 이어갔다.

“알았어 미안해~ 다음부터는 안 혼나도록 몰래 놀면 되는 거지?”

“말이 안 통하네? 스카이 오늘부터 칼로는 없는 사람인 셈 하자!”

“동감이야 리암. 다음 체육시간이던가? 우린 어서 가도록 할까. 오 분 남았어.”

“오늘은 체육 시간에 뭐 하려나? 농구면 아프다고 거짓말 치고 쉴래.”

두 사람은 어깨에 올려진 팔을 뿌리치고 재빨리 발걸음을 옮겼다. 칼로는 드물게 쩔쩔매는 기색을 보이며 졸래졸래 따라붙은 후, 자연스럽게 두 친구들 사이를 가로질러 들어갔다. 머리 반개만큼 더 큰 스카일러와 머리 반개만큼 더 작은 리암 사이에 끼니 마치 잘 정리한 책장 같은 모양새가 되었다.

“미안하다니까? 정말로. 앞으로 주의할게.”

“… …”

“아하, 정말이지 매정한 친구들이네? 진실한 베스트 프렌드의 마음을 받아줄래?”

“칼로 맥키니… 저번에 쓰기 시험에서 C를 받더니 진실함의 뜻도 헷갈리나본데.”

“사소한 건 넘어가고, 내가… 그래! 사과의 의미로 재미있고 유익한 사건을 알려줄 테니 용서해주라.”

“재미있는 사건?”

모르는 사람인 척하자 할 때는 언제고 ‘재미있는 사건’이라는 말에 벌써 솔깃해졌는지 리암이 도르륵 시선을 올렸다. 스카일러는 내내 심드렁한 표정이었으나 마음만은 이미 리암만큼이나 ‘재미있는 사건’에 관심이 기운 상태였다. 칼로가 종종 가져오는 여러 사건이나 소문들은 실제로 대부분 흥미로운 편이었다. 매번 역정을 내면서도 두 아이가 솔깃하게 할 정도로. 그러나 곧바로 흥미를 드러내기는 민망했는지 스카일러는 퉁명스레 한마디 덧붙였다.

“또 이상한 이야기겠지.”

말투는 거칠었으나 어조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이를 금새 눈치챈 칼로는 히죽 웃으며 대단한 것을 전달하듯 소곤거렸다.

“뭐어 그렇긴 하지만? 들어보면 분명 마음에 들어 할 거니까? 세상에, 쉬는 시간 끝나겠다. 어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모이자! 가서 말해줄게.”